

# 누워계신 부처님 말하시네...무거운 짐 두고가라고

## 와불이 있는 사찰을 찾아서

### ① 태안 보타락가사

심신을 모두 놓아두고 편안하게 쉬고 싶은 도량. 경내서 서해에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쉬 수 있는 절. 바로 태안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보타락가사이다.

대개 우리나라 해안 사찰에는 관음상이 웅대한 자세로 서 있다. 3대 관음성지라는 동해의 낙산사와 서해의 보문사, 남해의 보리암에도 예외 없이 관음보살상이 있으며, 이외에도 부산 기장군 용궁사와 강릉 정동진 등명낙가사에도 또 이곳 태안 보타락가사에도 있다.

특히 이런 관음상은 해수관음상이라 해서 '바다'로 상징되는 사바세계서 헤매고 있는 중생들을 구원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불경에 의하면 관세음보살님은 보타락가사 해안가 절벽에 항상 계신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해안 사찰에는 어김없이 관음보살상이 세워져 있다. 천 개의 눈과 귀로 중생의 괴로움을 모두 듣고 천 개의 손으로 중생을 자애롭게 구원하는 관세음보살. 그런데 이곳 태안 보타락가사 관세음보살은 웅대한 석재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절에 비해 특이하다. 매일 정오(낮 12시)에 웅장한 찬불음악소리와 함께 대웅전 지붕 위에서 잠깐 현현 하신다. 짝짝 이벤트다. 사찰을 방문한 이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면 환희심과 법열을 느낀다고 한다. 이는 회주 법진 스님의 아이디어로 특수 설계해 만들어 졌다. 신도들의 불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다. 역사가 5년 남짓 되는 보타락가사에는 보물이나 문화재가 전혀 없다. 하지만 이름에서 미루 짐작할 수 있듯이 중국의 관음성지 보타락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관음기도를 많이 했던 회주 법진 스님은 10여년전부터 관세음보살을 모신 중국 절강성 보타산(普陀山)으로 기도 순례를 자주 떠났다. 보타산은 지장보살을 모신 안휘의 구화산(九華山), 보현보살을 모신 사천성의 아미산(峨眉山), 문수보살을 모신 오대산(五臺山)과 더불어 중국 4대 불산 중의 하나다. 옛 시인들은 '산과 호수의 으뜸은 서호에 있고, 산과 강의 명승은 계림에 있고, 산과 바다의 절경은 보타에 있다'고 노래했듯 정도로 보타산을 신성시



금불로 만든 길이 10m의 거대한 '열반 와불상' 부처님은 알듯 모를듯한 얇은 미소를 띄며 참배객들에게 편안함을 전해준다.



서해안의 새 관음성지로 떠오른 보타락가사 전경



대웅전 안에 모셔진 부처님

여겼다.

보타산은 '보타락가산'의 준말로, 보타산과 낙산 두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다. 이는 불경에서 나온 이름으로 백화산, 광명산이라고도 부르며, 남해보타산이라고 부른다. 보타산에 불교가 처음 들어온 것은 당(唐) 대종(大中) 연간(847-860), 어떤 인도 스님이 이곳에 이르러 열손가락을 스스로 소지공양해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일곱 색깔의 보석을 받았다는 전설로부터 이곳이 관세음보살이 현신한 성지로 알려졌다.

보타산에는 역대로 끊임없는 불사를 일으켜 청대의 건륭(乾隆) 연간에는 3개의 큰 사찰과 88개의 암자, 148개의 기도원이 있었고, 승려는 모두 2,000여

### 서해안서 새로 떠오른 관음성지 명성

### 매일 정오 대웅전 부처님 지붕 위로 현현

### 10m 금불로 만든 '열반와불상' 조성해

명에 달했다. 특히 보타산 풍광은 바다와 산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흔히 "산과 호수의 으뜸은 서호(西湖)에 있고, 산과 강의 명승은 계림(桂林)에 있고, 산과 바다의 절경은 보타에 있다."고 표현하며, 또한 '남해의 불교왕국'이라고 일컫고 있는 성지다.

태안 보타락가사 회주 법진 스님이 발원하는 것도 바로 한국의 관음성지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아직

태안락가사는 계속 불사를 지속중이다. 이 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각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와불전이다. 그 안에는 금불로 만든 길이 10m의 '열반와불상'이 모셔져 있다. 열반에 든 부처가 누워있는 거대한 모습이다.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를 띤 부처님 얼굴이 편안함 느낌을 주면서도 재미있다. 부처님 생애 가운데 가장 극적인 대목 중 하나가 열반하는 장면이다. 부처님은 석 달 전에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고, 숨을 거두고 10여 일이 지나 제자들이 모두 모인 다음에는 관 밖으로 발을 내보였다고 기록돼 있다. 또 부처님 다비 후 나온 사리는 3등분해 천신과 용왕, 인간계로 나뉘고 인간계에서는 8명의 왕이 가져갔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부처님이 두 그루의 사라 나무 사이에 비스듬히 누워 열반했다고 전해지는 인도의 쿠시나가르 현지에는 그의 열반을 기리는 '열반사(涅槃寺)'가 조성돼 있다. 그곳의 열반상은 11세기 당시 모래와 진흙으로 만들어졌다고 전해지지만, 이곳 보타락가사는 금불이다. 조성시기와 무게감은 서로 다르지만 보타락가사의 열반상을 대하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전한 마지막 가르침이 깃가에 쩌렁쩌렁 울리는 듯하다.

"헛되이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모든 것은 덧없으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라고.

태안 보타락가사=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열린템플스테이 개설해 운영할 예정"

#### 회주 법진 스님 인터뷰



"보타락가사 해수관세음보살님은 하루에 한 번 석상에 나타십니다. 평생에는 법당 내에 모셔져 있다가 정오가 되면 대웅전 위로 올라와 서해바다를 바라보도록 설계됐죠. 관세음보살님의 대원력으로 중생의 아픔이 사라지고 모든 중생이 구제되기를 바라는 것이 보타락가사가 조성된 이유입니다. 보타락가사 회주 법진 스님은 앞으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보타락가사에서 종교를 초월한 열린 템플스테이를 구성중이라고 밝혔다. 좌선과 사찰예절, 지구력 체험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그래서 현재 2층 규모로 템플스테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불사가 한창이다. 앞으로 관음성지답게 천도재 전문 도량으로 운영하겠다는 법진 스님은 "보타락가사 인근에는 시험보는 학생들을 위한 훈장북대바위, 부부금실 바위 등 재미 있는 설화가 깃들여진 바위들도 많아 관광명소로도 손색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

### 주지 스님 추천 이것만은 클릭...오백나한상 수석, 관음보살상



관람객 시선에따라 눈이 함께 움직이는 관음보살상

와불전의 열반상 뒤로 돌아가 보면 수석 수집

가에게 기증받은 오백나한상 수석들이 가지런히 진열돼 있다. 와불의 거대한 규모에 놀라 이 나한상들은 뒷전에서 밀리는데 한 번 친견해 볼만하다. 불상이 든독한 서울의 한 수석가가 평생 모은 돌을 회주 법진 스님에게 회사해서 조성된 것이다. 와불전에서 놓치지 말고 봐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 와불 뒤 천정쪽에 모셔진 관음보살상이다. 천개의 눈을 가진 것처럼 관람객들의 시선에 따라 관세음보살님의 눈도 함께 움직이게 만들어져 있다. 중생의 아픔을 마치 함께 하고 있다는 의미로 전해진다. 자못 흥미롭다.

### 주변 가볼만 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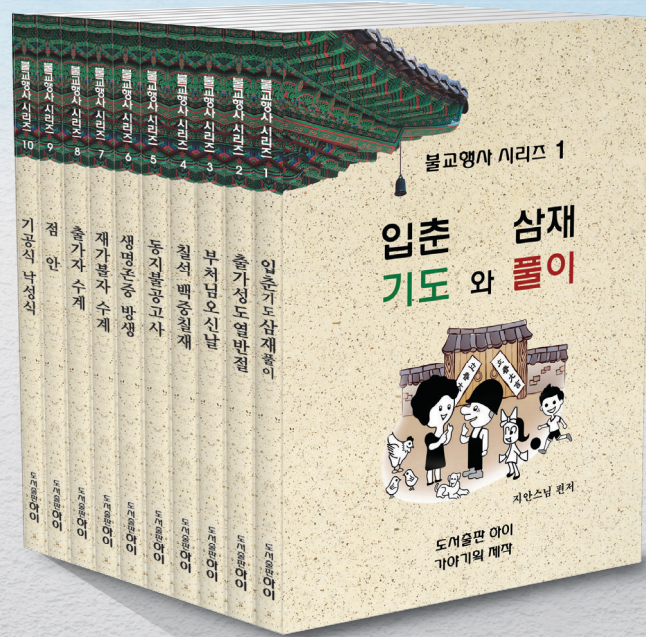
#### ▲태안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국보 제 307호)

우리나라 마애불상의 초기 형태로 부채꼴 바위 면에 조각된 감실을 마련해 중앙에 보살상을 두고 좌우에 불상을 배치해 놓음으로써 1구의 불상과 2구의 보살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삼존불상과 달리 2구의 불입상과 1구의 보살입상이 한 조를 이루는 특이한 삼존불상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2구의 불입상은 양감 풍부한 얼굴에 크게 번지는 미소, 넓게 벌어진 당당한 어깨와 장대한 체구, 도톰한 듯 날카로운 대좌의 연꽃무늬 등 세부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양식 특징을 보인다.

# 불교행사 지침서

## 알기 쉽고! 간편하고! 편리하게!

### 지안스님이 엮어가는 불교행사 정진기도 시리즈



입춘, 출가성도열반전, 부처님 오신날, 칠성불공, 백중칠제, 동지불공 고사, 방생, 재가불자 수계, 출가자 수계, 점안, 가공식 낙성식 기도와 예식 행사, 공양차림은 어떻게 지내고 지켜야 되는지 101권으로 시원하게 알려준 **지안 스님의 지침서**

입춘은 탄생과 생명력을 상징, 불교신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중생구제 기도로 절에가서 불공을 드린다. 입춘정의, 입춘기도준비, 기도순서, 기도진행, 삼보통칭, 신중칭, 염송기도, 삼재풀이 민속식, 삼재풀이 기타식, 입춘추, 삼재부족등 수록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하는것은 소극적인 선행이고 방생을 하는 것은 적극적인 선행이다. 준비,식순,진행,방생문,여류방생 기도문, 조류방생기도문, 방생기도 소원지, 방생사진, 방생 이야기, 방생 공덕, 용궁 치성 방생등 수록.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시작을 태양의 부활로 여겼으며, 재액 초복을 위해 집안신에게 팔족을 올리는 세시풍속의 의례적 고사로 불교신자들은 절에가서 불공을 드린다. 동지 정의, 세시풍속, 불공 준비, 순서, 진행, 삼보통칭, 신중권공, 신중불공, 신중염송, 영단 제례, 영가 시식, 동지 고사, 팔족 예화등 수록.